

광양에 창작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생긴다

중소벤처부 사업 최종 선정...4차산업 창업교육·체험 공간 활용
중마도서관에 3D프린터·CNC조각기·레이저 커터 등 장비 구축

광양시가 민선 7기 5대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미래 4차 산업 육성분야에서 창업 교육과 체험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광양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메이커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실시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응모 결과 일반캠프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에는 전문 캠프 5곳과 일반캠프 60곳이 각각 선정됐으며 창작 활동이 활발하고 주민 이용 증진

대학생들이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 25곳과 광역지자체별로 2~3곳이 뽑혔다. 전남에서는 광양시를 비롯한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고 5년간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메이커 스페이스’가 들어설 광양시립중마도서관에 3D프린터, CNC조각기, 레이저 커터 등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들어설 장소인 중마시립도

서관은 연간 이용자가 13만명에 달해 ‘시민 누구나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목적에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말에 주관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기관인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양교육지원청, (주)남다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자체적으로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에 청년창의공간을 신축해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장 이전하고 창의융합교육 실습 장소로도 활용하는 등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한 기능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체험활동은 물론 드론과 3D프린터 동호회, 일반인까지 시민 모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향후 전문창업과 창업연계를 위한 전문캠프의 발판을 놓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나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중마도서관에 일반캠프가 구축되면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창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 만큼 시설구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기정떡’ 이달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

광양시는 향토음식인 ‘광양기정떡’을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6월 말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광양시장 재난안정상황실에서 광양기정떡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관리화 사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관리화 사업 세부추진 내역과 예상 문제점, 극복방안,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는 그동안 오래전부터 전통음식으로 대중화된 광양기정떡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기초환경조사와 광양기정떡 생산자 현황과 품질특성 조사, 인증마크 개발 등을 진행해 왔다.

또 광양기정떡이란 상호가 전국 80여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어 명칭난립에 따른 출처혼동 우려를 없애기 위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서둘렀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란 지역 특산물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성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되어 품질기준을 규정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오는 6월 말 출원이 마무리되면 광양에 소재한 56개 떡방앗간을 대상으로 증명표장 사용 신청을 접수받고 포장 디자인, 쇼팜백, 앞치마 등 예산지원과 품질관리 유지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증명표장 출원으로 상표권



광양 기정떡

을 보유하고 광양기정떡의 품질 향상과 제조자의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지역특산물 명성유지와 지역홍보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출원을 통해 광양시 대표음식 품질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광양 대표음식 브랜드 육성과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특허청에 2015년 ‘광양 망덕전어’, 2017년 ‘광양불고기’와 ‘광양닭숯불구이’, ‘광양초남장어’를 특허출원했다. 올해 초에는 ‘광양삼진강제첩’이 특허청으로부터 증명표장을 등록받아 관광객들이 믿고 찾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4년연속 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광양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우수상 수상으로 2015년 특별상을 시작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최우수상을 받는 등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으며 민선 6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시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상장을 수여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임기 중에 실현할 일자리 목표 추진실적을 일자리 공시제 평가를 통해 시상하고 있

다. 평가는 지난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을 토대로 중앙고용평가단에 의한 1차 서면평가와 2차 PPT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과 전남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등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다.

또 제조업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목표대비 106.7%인 공시제 일자리 1만8000개를 창출했다.

특히 지난해 개소한 고용복지+센터 개소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모아 취업다하



‘광양시 일자리 정책 관계자들이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기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동개최 등 연계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해

계별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물론 4차 산업 분야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장한청소년 위안행사 110여명 참석 성료

지난 19일 광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장한청소년 위안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양시가 후원하고 (사)한국BBS광양시지회(지회장 김영한)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과 회원 등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한청소년 위안행사’는 1992년부터 부모가 없는 가정, 장애인 가정, 한 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행사는 광양시와 BBS광양시지회에서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장한청소년 70명에게 준비한 장학금과 표창장을 각각 전달했다.

이어 광주패밀리랜드를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현숙 광양부시장은 “이번 장한청소년 위안행사가 우리의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더 크게 키우며 지역과 국가의 기둥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19일 ‘장한청소년 위안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광양교육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교육지원청 제공>

SNS 기념품 광양매실 캐릭터 ‘매돌이’ 인형 인기

광양시가 SNS 기념품으로 제작한 광양매실 캐릭터 ‘매돌이’ 인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푸른보약 광양매실, 캐릭터 인형 이벤트’에서 광양매실을 형상화한 SNS 캐릭터 ‘매돌이’ 인형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매돌이 인형’은 웃는 모습과 눈을 왕크하는 모습 2종류로 가방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인형고리와 함께 한손에 잡히는 사이즈로 제작됐다.

특히 SNS 공개 후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 및 댓글수가 3000개가 넘을 정도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시는 시범적으로 매돌이 캐릭터를 각종 SNS 이벤트와 행사 경품 등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 SNS 기념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만큼 추후 인형뿐만 아니라 캐릭터 블루투스 스피커, USB 등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을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SNS 캐릭터 인형 ‘매돌이’

그는 또 “각종 온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도 ‘매돌이’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 친숙히 다가가고 소통하는 SNS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매실 캐릭터 인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매화축제 홍보 보조배터리와 운동주 유교보존 정병욱 가족 안내 여권케이스 등 3종류의 기념품을 제작하고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